

2월 1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경제+ 금융우려 증폭 뉴욕 급락..다우 3.7%↓ [다우: 7552.60 (-3.79%)</p>	<p>17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 주요 지수는 일제히 3~4%대의 하락률을 기록. 경기후퇴(recession)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금융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장마감 직전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지만 깊어진 경기후퇴 우려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 예상보다 심화된 일본의 경기후퇴와 동유럽발 금융불안 등 글로벌 악재도 투자심리를 짓누름.</p>
<p>오바마, 7870억弗 경기 부양법안 서명</p>	<p>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장 마감 직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이날부터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게 됨.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한 오늘이 경제 위기의 끝이 아니지만 고용 창출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함.</p>
<p>동유럽發 금융불안→금융주 급락</p>	<p>동유럽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불안감을 촉발함에 따라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짐. 무디스는 이날 동유럽 경제의 가파른 침체를 들어 이 지역 익스포저(거래에 따른 손실 위험)가 큰 서유럽 은행들의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p>
<p>뉴욕 제조업경기 `사상 최악`</p>	<p>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22.2에서 -34.7로 하락했다고 밝힘. 이는 지난 2001년 관련 집계 시작된 이래 최저치. 경기후퇴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와 수출 급감,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 경기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 기업들이 쌓여가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 생산감축과 감원 등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제조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p>
<p>유가 7%↓ 35弗 하회.. 글로벌 침체 우려↑ [WTI: \$34.93 (-\$2.58)</p>	<p>국제 유가가 동유럽 경제의 가파른 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후퇴(recession)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급락, 35달러선 아래로 떨어짐. 동유럽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불안감과 함께 경기후퇴 우려를 증폭. 한편 후세인 알-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AP와의 인터뷰를 통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추가 감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재차 강조.</p>

제목	주요 내용
獨 은행국유화 법안 확정	독일 정부가 은행 국유화 법안을 확정. 독일 대연정 지도자들은 17일 (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 18일 각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함.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파산 시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으며 모든 가능한 조치들이 소진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주주들의 지분도 유상압류할 수 있게 됨.
일본도 엔高 앞세워 광산·가스전 출자확대	일본도 엔화 강세를 앞세워 최근 원자재 확보에 부쩍 열을 올림.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에너지·광물 자원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 일본의 경우 국영기업보다는 종합상사들을 전면으로 포진시켜 해외 시장에서 원자재 확보에 나선 점이 특징.
中, 露에 250억 달러 주고 20년간 원유 받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두나라 언론들이 17일 보도. 계약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에 연 1,500만 톤(하루 30만 배럴)의 원유를 향후 20년간 제공하고 중국은 이를 댓가로 250억 달러를 주기로 함. 중국은 차관형식으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에 150억 달러, 국영 파이프라인업체인 트랜스네프트에 100억 달러를 지원.
1월 펀드수탁고 18조 ↑..MMF 빼면 `정체`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체 펀드 설정잔액은 378조9,000억원으로 지난 12월에 비해 18조2,000억원 증가. 자금융출입 기준으론 19조1,000억원이 순유입. 펀드 순자산액도 20조4,000억원 늘어 전체 순자산액은 308조9,000억원을 나타냈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지속되며 국내·외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지만, 안전자산에 선호현상 탓에 MMF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대량유입되며 펀드 수탁고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식품업체, 빗나가는 환율에 노심초사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식품업체들이 울들어 당초 기대했던만큼 환율이 떨어지지 않자 고심하고 있음. 여전히 원자재 수입 부담이 큰데 최근들어 오히려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거나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금융시장 '3월 위기'로 치달나	환율 1,455원대 급등·코스피 48P 급락. 국내 금융시장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음. 세계적으로 실물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외환·주식·채권시장 모두 연일 휘청거리고 있음. 특히 국제금융위기의 불길은 이달 안에 잡히지 않으면 국내 금융시장은 3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산 되는 분위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